

전주시 외곽에 마을택시 달린다

전주시 외곽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택시가 운행된다.

전주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간 총 1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개나리 마을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열리는 '택시다들마당'을 통해 개나리 마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 선정 농촌마을 대상 개나리 마을택시 운영

택시 운행지역과 이용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고,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상 마을은 버스승강장까지 보행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을 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사업자 공고 및 대상지 방문 설명회를 거쳐 3월 중 본격적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개나리 마을택시는 교통접근성 취약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로, 시는 버스승강장까지의 보행거리가 1km 이상이거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을 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개나리 마을택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각 마을별로 하루 3회에서 8회 정도 운행되며, 농촌마을에서 전주시

장 등 주요 목적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60여년만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던 중 마을택시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교통 소외지역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민 체육대회 열린다

15일 화산체육관서

'66만 전주 시민의 화합 한마당'인 2016 전주 시민체육대회가 오는 15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전주시 33개 동 주민과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4000여명이 참여해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잔치를 연다.

이날 체육대회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5개 종목의 동 대항 경기와 시민참여단체와 장애인가족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투호·고

리걸기·전자다트 등 총 9개 종목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배구경기는 지난달 진행된 사전경기를 거쳐 결승에 진출한 송천2동과 평화2동(이상 2부), 효자동과 인후3동(1부)이 각각 이날 우승을 목표로 격돌하게 된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2016 시민체육대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그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풍성한 한마음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아침밥을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하나로 김영춘 대표는 13일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왜 쳐다봐”

중학생 폭행 40대 구속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공인 화장실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정읍시 수성동 공인 화장실에서 중학생 정모(14)군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술에 취한 장씨는 정군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평소 술만 마시면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먹살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 생리대 지원

전주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센터장 황희)는 13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황 센터장은 이날 “둘째 딸 하은이의 100일을 맞아, 좀 더 뜻깊은 일을 실천하고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후원하게 됐다”면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운동화 갈창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SNS 등을 통해 접하자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난 6월부터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만 10세부터 18세 사이의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695명에게 여성용 위생용품 지원해 오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국체전 출전 전주시청 선수단 금2·은5·동4 등 11개 메달 수확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진행된 제97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사이클·수영·태권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합작하며 전북선수단의 종합득점에 크게 기여했다.

전주시 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지난 7일 음성 사이클경기장에서 진행된 MTB 경기에 사이클부 권진욱 선수가 유병진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12일 열린 남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선에서는 양준혁 선수가 김성겸 선수가 1위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양준혁 선수와 김성겸 선수는 앞서 진행된 남자 자유형 200m와 자유형 50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경륜종목에 출전한 김중열 선수와 수영 자유형 1500m 박석현 선수, 수영 접형 50m 전성민 선수가 은메달을, 태권도 80kg급 최영준 선수와 68kg급 고용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주 시청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땀 흘린 대가를 수확했다.

안동일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힘겨운 훈련을 거쳐 이번 체전에 참가해 전주시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스포츠 도시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하나로 김영춘 대표,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성금 기탁

전주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아침밥을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하나로 김영춘 대표는 13일 전주시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 대표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손녀 김한별 양의 돌잔치 대신 가족끼리 간소한 생일파티를 하고, 절약한 비용을 후원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김영춘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친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뜻깊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엄마의 손길처럼 후원금이 사용돼 단 한명이라도 굶주리고 소외되는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엄마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보살핌이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혼자 아 니라는 꿈과 희망을 주고,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엄마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엄마의 밥상에 후원해 주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귀하게 여겨 더욱 열심히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